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채 종 한

<차 례>

I. 들어가면서

III. 맺는 말

II. 인간과 자연 사이

I. 들어가면서

시란 무엇인가? 과연 시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아무래도 시의 정의는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만 사람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관성 쌍둥이일지라도 지금 디디고 서 있는 자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의 상태는 다를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록 시의 정의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 수명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머물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차라리 시의 정의가 없다는 정의가 올바른 시의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시가 생길 수 있고, 시가 만들어진다. 역으로 시가 있다면 반드시 마음의 표현이 있기 마련이다. 시가 있다는 것은 물결처럼 마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 마음의 움직임이 글무늬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이다. 마음의 움직임은 대체로 마음의 평온함이 깨어졌다는 것이고, 깨어진 마음은 시로 평온한 마음을 복원시키고자 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시를 통해 위로받기도 한다. 그래서 카타르시스 기능도 하며 思無邪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평온한 원형을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며, 대립된 음양이 하나가 되는 동일성 획득도 일리가 있는 말이 된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다. 죽는 그 날까지 그 속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고통은 시작되고, 그 자체가 원죄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곳은 죽음이라는 곳이고, 죽음은 항상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기도 한다. 두렵다는 의식이 지배할 때 조금하여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무상함에 세상과 등지게 하는 연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한정된 삶의 수명 앞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간다는 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이 주어진 축복을 최대한 겸손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다. 그래서 각자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어느 길이든 선택하여 살 수 밖에 없다. 비록 공간이 즉 주어진 환경이 척박하고 미천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그래서 꿈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꿈은 현실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꿈을 무시하여서는 더더욱 안된다.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 꿈은 속세적인 사람의 욕망과 엄연히 구별된다. 한 없는 바벨탑 쌓기같은 꿈은 꿈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꿈을 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울날 밤에 눈이 내리듯 그렇게 소리없이 살아 갈 일이다. 새벽녘이 오면 여름날 태풍이 불어도 넘어뜨리지 못한 나무가지처럼 넘어뜨리 듯이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주어진 삶은 고통스럽되 한 생각 바꾸어 보면 내가 선 이 때 이 자라는 바로 천국이고 극락이 되는 것이다. 비록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상황일지라도,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살아 있음으로 행복의 출발점이다. 인간도 예외일 수 없다.

II. 인간과 자연 사이

1. 뼈속까지 스며드는 기억들

김철규의 시집¹⁾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이 때 이 자리가 천국이고 극락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살아있음으로 행복해 한 인간이 그였다. 동시에 늘 그 고통의 원죄를 잊지 않고 살았다.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너무나 야속하였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다만 초라하고 세속에 물든 조그만 출판사 편집장이 그의 마지막 일 자리이었다. 태어난 자리와 그의 끝 자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고난과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여러면에서 그는 천상병 시인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거대담론의 천상병 시인과 달랐던 그는 미시담론적 꿈을 놓치지 않았다. 그 꿈은 결국 죽고 난

1) 김철규 시인 유고시집 『꽃잎지는 식물들』(새벽출판사, 1996.5)을 읽고.

뒤에 그의 유고시집으로 드러났다. 유고시집 속을 드러다보면 그의 삶의 궤적을 훑쳐보는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늘 웃기만 했으므로, 허름한 갈색 바바리 쿤트에 감춰진 무거운 고통을 묵묵히 안고 산 그는 시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시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대학도, 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미련 없이 꿈만 꾸다가 여러 동지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 버렸다. 그의 죽음이 마지막 시작품이 되었다. 온몸으로 그는 마지막 시를 썼던 것이다.

그는 살아 있음으로 자족할 줄 알았고, 토끼같은 아들과 아내를 비롯하여 신세진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는데 항상 미안해 하던 시인이었다. 한 권의 시집보다 청정하고 순수하게 살아보려고 무진장이나 애를 써보았던 그에게 사회는 너무나 냉혹하였다. 그 냉혹한 사회에 돌을 던지기를 수없이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힘을 모아 '백전동인'을 만들어 이 대학 저 대학 떠돌며 울부짖기도 몇 번이었던가! 돌아온 그 결과는 바다에 사람목숨같은 돌 하나 던지는 꼴이 되지 않았던가!

어두운 생가의 그늘 밑으로
똥을 누다.
아직 뜨겁게 살아 있음이
이렇게나마 간절하다.
 <뒷간에 앉아> 전문

밖으로 이 대학 저 대학 떠돌다 돌아와 앉은 뒷간에서 한 덩어리의 배설물로 웅축시키는 놀라움이야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며칠째 자꾸만 설사를 한다
입맛없이 살아온 지 아득한데
물똥이나 갈기며 버티는
질린 눈빛, 우풍 센 하루
 <다시 뒷간에 앉아> 전문

그가 죽을 때까지 처가에서는 딸을 낳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사위 아닌 사위로 사회생활은 시작되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 시작된 입맛없는 사회생활은 늘 설사였다. 내 하나 살아 있음으로 우풍 센 하루 하루를 견디어 내었다.

제비꽃들아
 땀 들이지 않고 가슴 열던
 네 입술은 다시 파랗게 질리고
 새벽이 오라, 귀 기울이다
 어쩔거나 사투리 섞인 울음들
 못내 비린내만 남아 꿈틀거리는 구나
 너댓 자식을 둔 에미의 젓가슴처럼
 눈물겨운 사랑만 남겨두고 시들어가는구나

헌 고무신 한 짝에 얼비치는
 네 마른버짐 많던 험썩한 얼굴이
 두리번거리다 걸어채이고
 때로는 네 키만큼한 그림자 끌어안고
 이러다가 정말 이러다가
 어쩔거나 몸부림치는 찢긴 역사여

제비꽃들아
 씻기지 않는 설움 밤새껏 흔들어도
 누군가 문 걸어 잠그고 매질하면 짓밟으면
 한 잎도 피우지 않는 제비꽃들아
 <제비꽃들아> 전문

제비꽃을 왜 한반도로 해석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너무나 제비꽃이 한반도와 닮아서 인지 아니면 김철규 시인의 삶을 한반도와 비유하여서 그런지 모르겠다. 어쨌든 김철규 시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록 전형적일지라도 한반도를 비유한다면 너무 거창하다. 그에게 씻기지 않는 설움은 무엇인가? 밤새도록 돌파구를 찾아 보려고 해도 출구가 없는 삶은 왜 그런가? 그는 답을 명확히 하고 가질 않았다. 다만 <조선후기를 배우면서>, <해어짐을 위하여>, <조식동물에게> 등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숨이 되기 위해/ 몇몇하게 새벽을 건져올리던 여기/ 피를 마신 그 채수 움불은 것들 앞에 엎드리지는 말게나’라는 구절이 나에게, 아니 우리 독자에게 충고하는 듯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사람이 아니면 만나질 말아라라는 옛말처럼 들린다. 비록 짧은 삶을 마감하면서까지 푸른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가 충분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한다.

2. 홀로 걷는 논둑길

산하도 말없이 더운 몸을 풀고
 자생의 만고 진리는
 순서도 규칙도

다만 자연에 순응할 뿐이다.
<자연>

주기문의 <춤추는 자화상>은 존재 그 자체에 성실히 따르고자 하는 시들의 모음집이다. 존재는 어둡고, 무의식적이며, 역동적이고, 무한히 생산되는 그 어떤 것이다.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고정되어 있는 법이 없다. 존재는 주어진 환경과 끝없는 대립과 화해를 통해 그 존재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결국 존재는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힘과 그 힘을 흡수하려는 또 다른 힘으로 하나가 된다. 그 하나는 평화와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의 흐름은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 그 하나가 깨뜨려질 때는 불화와 갈등이 생기고, 즉 동일성 상실이 생기고 그로인한 고통은 고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순수한 자아와 개별적 자아가 원래 하나인데 분열이 일어날 경우 인간은 번민의 날을 살 것이지요, 역사의 흐름은 전투의 연속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기문의 시집 <춤추는 자화상>은 하나가 되기위한 몸부림의 시편들이다.

위의 인용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이 시집의 전체적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시적자아가 인간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산하' 즉 자연물도 더위에 몸을 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순서와 규칙도' 그 흐름에 순응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시적자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곧 허상이며 일시적이라고 인식하고 또한 그런 세계관을 굳건히 가지고 있다.

시집 <춤추는 자화상>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분열상의 하나가 가난과 왜곡된 현실의 비판이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들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가난과 싸운 시적자아의 과거사는 처참하리만큼 비참하였고 고통스러워 했음을 여러 시편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가난은 시적자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환경과 불일치에서 오는 고통의 원인이다. 그 환경은 부를 어느 정도 누릴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였을 때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적자아는 부모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가난을 스스로 제거 해가고, 그 제거해 가는 과정이 시적자아의 행복이며 삶 전부이다. 그 가난을 제거해가는 공간이 농촌이고, 이 농촌에서 흙과 더불어 살다보니 흙으로부터 교훈적이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 대를 이어 자갈논에서 농사를 하였다는 <자갈논>, 가난한 시절에는 한 마리의 벼멸구조차 증오의 대상물이 되었던 <벼멸구>, '공출마당'만 보아도 진절머리나는 <가을의 두 얼굴>, 가난했던 부모의 삶을 회상하는 <세월>, 어머니의 삶은 가난의 역사였다는 <母像>, 과거의 절박

한 상황이 드러난 <돌아보는 날> 등 이상의 시편들은 가난과 관련되어 있고 시적자아가 가난으로 고통을 받은 정신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가난과 싸우며 즉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것은 ‘진정한 삶’의 척도를 시적자아는 찾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들이 잘 드러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비에 젖은 사월은
된 몸을 뒤척이고
움추린 시골 가로등
힘겨운 빛을 뿌려놓으면
하루살이 떼를 지어 데모 시위를 하고 있다.

바람이 대지를 형클어 놓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었어도
사월은 결빙의 매듭을 풀어
강산에 풀꽃 대화를 열어 주더라

마른 봄날에
생명을 부지한 공해없는 들풀의 은혜
노고지리 개동하면
결보리 익기를 염원한
부모님 아랫도리는
언제나 풀이슬에 휘감겨
허탈한 걸음마다
가족들의 눈빛을 지고 가셨지

지금은 없어진 새
생가슴을 후벼파는
노고지리 허기진 울음도
개동의 노래마저도
허공 멀리 비워 놓고
달문(月門) 별이 되어 너는 갔는가?
 <4월>

위 인용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삶의 허무, 자연의 위대함, 자연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시적자아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어쩌보면 인간 사회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자연으로부터 위로받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이고, 시적자아의 순수한 욕망이 비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적자아가 인간사회와 자연을 비교하여 보건대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이 별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본질적 존재를 알지는 못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쫓빛 노을이 탄다
빈 들판에 부질없는 이름 석 자가
찢어진 형겅같이 날리고
어두움이 물어뜯는
분별없는 땅 위에 홀로 선 당신은
돈 때문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춤추는 자화상〉

위 인용시에서도 자연과 현실을 대비하여 시적자아의 심정을 싣고 있다. 그 심정은 다름 아닌 정의와 양심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현실이 이를 묵살하고 알아 주는 이가 없는데서 오는 비통함이다. 이 비통함을 통하여 시적자아의 향후 가야할 길은 자연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으로 자연의 순리를 인식하고, 자연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시적자아는 외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하는 것이 바로 자연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시적자아의 삶이 어느 것보다 우선이라고 고집하기 보다는, 그 길이 시적자아가 걸어가야하는 마땅한 길임을 평온한 마음으로 수용할 때, 그 때 비로서 진정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 시에서 강렬히 보여주는 이미지는 시적자아의 순수한 마음과 외로운 심정을 말하지만 자연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것이다. 자연은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산이나 강물처럼 자연물을 말하기도 한다. 한 인간은 자연물의 일부이면서 시간적 흐름을 따르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언젠가 다가올 모든 것과 융화되어 자연스러워지는 삶, 평화로운 삶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이며, 평화가 오기 이전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의 숨겨진 정신적 배경인 것이다.

시적자아가 대사회적 발언을 하는 시도 다수가 보인다. 위에서 논한 것들이 모두 개인의 문제라면 다음과 같은 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입장을 말한다.

지난날
배고픈 시절
신 품종
통일벼 재배로
민생고를 해결한
농촌은
녹색혁명을 성공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마련한
비닐 재배로
농촌은
백색 혁명을 마쳤다.

지금은
산업사회에 휘말려
온갖 고뇌와
번민이 들녘에서
외뿔으로 살아온
농사꾼들은
빈곤의 움막에서
산업폐수와
오염의 공기를 마시고 산다.
 <두 개의 혁명>

마을 개구리
울챙이 모아놓고
함창으로 자맥질하며
山村 祈雨祭를 지낸다.

祭物은
국산품으로
청충
벼멸구
끝동매미충
미나리 나물
석류풀 나물
울미 과일에
지느러미 나래춤 추며
축제처럼 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천지산 용지붕에서
기우제를 지낸다.
제물은
호주産 쇠머리
중국産 고사리
미국産 더덕
미국産 밀가루 빵
미국 담배

일본 카메라가 번갯불을 켜고
 북 땀으로 먹은
 중국産 보신탕
 중국産 염소 곰탕
 중국産 추어탕에
 신트림을 하고
 사람은 엄숙한 척
 저마다 가슴에서
 속말을 내고 있다.
 <祈雨祭>

경운기 트랙터 종일 울던 날
 분한 발톱 땅을 파 후비면
 흙탕물 정신 잃고 자리 바꾸는
 우리들의 논바닥
 앉은 자리 서열은
 맑은 날 실비가 내린다.

핏푹이 줄지어 깔아 놓은
 여린 모포기 자맥질 힘겨워도
 햇빛 목에 걸고 주인 기다리던
 너의 전성시대는 달빛 아래 이야기
 억 수천년에 보답해 왔다만
 UR이란 비틀리어진 글과 말에
 일등 호답 올릴 눈 수집 좋은 들판에도
 단감나무 묘목이 주인인 양 서 있다.

한숨을 목에 머금고
 피눈물 짜다 먹물 목에 두른 농부
 도청 앞 광장에서
 쌀 쌀만은 지키자
 목메인 하소연은
 도시 사람의 구경거리로 보이는가
 <전환시대>

위 3편의 인용시는 농부로서 대사회적 발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두 개의 혁명>은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사회와 관련시켜 현실을 비판하고, <祈雨祭>는 수입품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주체적 입장과 관련시켜 이야기를 하고, <전환시대>는 농경사회가 산업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생존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 3편은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실을 비판하고, 생존을 유지하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들이다. 한편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한 시인의 뉘그러로 또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발언이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다. 어눌고 순박한 주장일지라도

타당한 발언은 타당한 것이다. <두 개의 혁명>에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되는 산업사회보다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자고 하는 이야기, <祈雨祭>에서 수입품을 외세의 침략이라 볼 때, 주체성을 잃지 않고 살자는 이야기, <전환시대>에서도 또한 한 농부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야기 등이 모두 생존의 원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힘의 논리로 이를 해석할 경우 대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한 농부의 고집 혹은 힘이 약한 한 농부의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입장은 한 개인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양심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입장이다. 또한 정직한 삶을 살아온 한 인간의 격언적 발언이다. 더욱이 가난과 병마를 극복하며 인간의 도리를 또한 잃지 않고 살아온 바탕이 모든 발언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가식적 발언이거나 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발언이라면 이미 시로서 가치를 잃고 말았을 것이다.

위에서 미약하나마 시인의 세계관과 사회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그의 가난, 병마, 부모, 가족애, 자연애 등을 소재로 정직한 삶, 바른 길, 이웃사랑, 환경보호, 효성 등을 노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시인은 농촌에서 살아왔고 농촌에서 살다보니 남달리 농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상대적으로 인위적 산업구조에 대해 비판적이고, 인간성 상실과 주체적 삶의 상실을 몹시 안타까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인의 세계관은 절대 존재를 믿기보다는 자연을, 개별적 사회보다는 공동체적 사회를, 산업사회보다 농경적 사회를 지향하는 것 같다.

이 시집을 읽으며 느낀 것을 덧붙인다면 시어가 가지는 힘은 있어 보여도 한 편의 시적 통일성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시집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이 시집도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그것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사회적 보편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넓은 소재, 보다 넓은 주제를 시화시킨다면 보다 설득력을 가지는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III. 맺는 말

니체가 150년 전에 이미 선악을 중심으로 통해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언어와 도덕이 허구적이고, 그에 따른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를 한 마디로 하면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이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

생태학적 세계관이 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성이라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인간중심의 세계인 근대를 열었던 데카르트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물론 그 속에 칸트, 헤겔, 사르트르를 비롯한 실존주의 등의 조류들이 맥을 못추고 있다. 그들이 펼쳐놓은 사상은 합리성이라는 명목하에, 인간의 끝없는 욕망만 불러 일으켜 자연을 파괴하고, 대립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주는 다 함께 그리고 하나라는 동양적 사고인 생태학적 사고가 21세기를 주도할 길목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인간중심의 사고와 자연중심의 사고인 생태학적인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둘 다 적용되어야 하거나, 둘 다 아직 청산 혹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근대라는 것을 완성하여 보지도 못한 한국, 이미 두 조류의 패러다임을 조선시대 때 어느 정도 실패한 혹은 앞섰던 한국의 사상은 혼란스럽다. 그래서 ‘그 때 그 자리’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돌파하여야 한다고 행각된다. 그 때 그 자리는 시간을 중시하는 생각이라면 생각이다. 각자 본인이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어느 것에나 적용되는 즉 보편성을 띤 시간이 안고 있는 깊은 문제를 이해한다면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원칙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생태학이나 대립과 갈등만 생산하는 인간중심의 끝없는 욕망이 다 재고의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 때 그 자리’의 문제제기는 이 시대에 중간단계의 패러다임으로 되어야 한다.